

사설

불멸 무더위 극기하는 방법은

날마다 불멸더위가 기승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짜증과 고통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일로 중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상호 간에 신경을 거슬리는 상황이 전개되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강한 폭력 현상들이 언론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작곡가이며 가곡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가곡들을 작곡했던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그는 불과 31년(1791.01.31~1828.11.19.) 동안만 생명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개척자라고 칭해지고 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계보를 이어주는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도 현대사회에서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생선 시, 매우 가난했다. 거기에다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원 수는 매우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먹을거리는 주로 깊은 밤에 샀다고 한다. 뿔이로 구매할 수 없기에, 냉동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뿔이 음식은 주로 소금을 뿌려서 상하지 않게 보관했다. 동서양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밤늦게 파는 음식에는 소금을 뿌려가면서 손님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상하지 않도록, 하지만 완전무결하게 보관할 수는 없었는가. 아무리 소금을 뿌려가며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음식과 같은 수는 없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신선함이 사라져가기도 하는 등. 그렇다고 음식을 만드는 순간부터 독한 간을 할 수도 없었는가.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로 판매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는 신선도가 떨어지기에 이에 따라 소금 간을 더해 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의 질은 저하되고 신선도 또한 늦은 밤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슈베르트 모습은 늘 퉁퉁 부은듯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어떤 사진을 봐도 그렇다.

이처럼 어렵게 살면서도 수입이 발생하면 가난한 예술가 후배들이나 친구들과 아낌없이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생활비도 줬다고 한다. 그와 친구였고 함께 빈곤한 시절을 겪었던 모리츠 폰 슈윈트(Moritz von Schwint, 1804.01.21.~1871.02.08.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의 화가)가 남긴 회고록에 쓰여 있다. 슈윈트는 나중에 화가 및 조각가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켰다. 슈베르트 음악은 아름다운 멜로디는 물론 그 무엇과도 비교(rapport)를 잘 형성하기에 매우 대중적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교향곡 8번 '미완성', 피아노 5중주곡 '송어', 가곡 '자장가',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마왕',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등이 그렇다. 슈베르트 곡들은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영화의 삽입곡이나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매우 감미롭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곡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작곡된 것들이다. 총 생애 기간 31년 안에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런데 요즘 날씨가 아무리 무덥고 습하다라도 이겨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보통의 경우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 최소한 선풍기라도 있다. 때문에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슈베르트의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극복하면 어떨까. 특히, 슈베르트 음악을 감상하면서 극기하면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도.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 주 2회 한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어떻든 나치정권 치하에서 있었던 총장 취임은 하이데거의 학문적 권위와 명예에 지울 수 없는 티로 남게 될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 스승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음)는 이러한 그의 과오를 "시칠리아 섬의 독재자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되었던 플라톤의 과오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주지하다시피, 플라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 국가' 실현을 위해 당시 시칠리아의 군주 디오니소스에게 다가가, 그의 정치고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의 과두정치를 비난함으로써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노예로 팔리고 말았다. 나중에 해방되어 고향인 아테네로 돌아와 인류 최초의 대학 '아카데미'를 세웠다. 제자 양성에 온 힘을 다하며 저서 집필에 몰두하던 플라톤은 기원전 357년, 다시 디오니소스의 간청을 받는다. 한동안 망설이던 플라톤은 다시 시칠리아로 향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1년 만에 돌아오고 말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 하이데거가 일종의 '확신범'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독일 민족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출세의 달인들-하이데거(4)

가능성을 나치즘에서 발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치즘에 동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치의 만행 특히 유대인 대량학살은 히틀러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닌, 인종 차별주의에 동조하는 독일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따른 범죄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대인 역사학자 미셸 베렌바움은 "국가(독일)의 정교한 관료제의 모든 부서가 학살 과정에 관여하였다. 독일 교회와 내무부는 유대인들의 출생 기록을 제공하였고, 우체국은 추방과 시민권 박탈 명령을 배달했으며, 재무부는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독일 기업들은 유대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유대인 주주들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은 유대인 지원자들을 거부하였고, 유대인 재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으며, 유대인 교수들을 해고하였다. 교통부는 강제수용소로 이송할 기차편을 운영하였다. 독일 제약회사들은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생체 실험을 자행하였고, 기업들은 화장터 건설 계약권을 따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또한 독일 IBM 지사의 천공카드(일정한 자리에 구멍을 내어, 숫자·글자·기호를 나타내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망 수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수용자들은 집

단학살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모든 개인 소지품을 반납하였고, 이는 다시 재분류되어 독일로 보내져 재활용되었다. 또한 독일 중앙은행은 비공계 계정을 통해 유대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재산을 세탁하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하이데거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치즘에 가입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치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 자신은 '나치즘의 광기(狂氣)를 나의 철학으로 교화시켜,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 몰라도,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스퍼스가 히틀러를 "교양이라곤 없는 인간"이라고 비판했을 때, 하이데거는 "그게 뭐 중요하나? 우아하기 그지없는 그의 손을 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하이데거가 히틀러의 그 우아한 손만 보고 그 손에 묻은 피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또는 못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그의 최대 실수가 아니었을까? -다음호에 하이데거 5편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격성이 강한 말벌에 의한 벌쏘임 출동과 벌집 제거 출동이 많아졌다. 또한 바다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해파리 쏘임사고도 주의하여 대처해야 한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과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이나 들에 벌이 있을 법한 장소에서는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다. 특히 등산이나 제초 작업 등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의 활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벌에 쏘이게 된다면 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 등 납작한 물건의 모서리로 긁어내듯 벌침을 제거한 뒤 소독한다. 이후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해 준다.

바닷가에 출몰해 피서객을 위협하는 해파리도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존재다.

해파리 쏘임사 고를 방지하려면 바다에 입수할 때 최대한 피부 노출이 적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부유물이 많은 곳은 피한다. 만약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당했다면 해파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 밖으로 나와 쏘임 부위를 해수로 씻는다. 피부에 남아있는 촉수는 맨손으로 만지면 일부 사

람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핀셋이나 장갑을 사용해 제거한다. 통증이 남을 경우 45℃ 정도의 미온수로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벌이나 해파리 쏘임으로 심한 통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지속된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불멸더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찾아보고 폭염 대책 요령도 설명해 드리며 부모님이 일하시는 논·밭 주변 벌집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효의 실천이 아닐까 싶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음력 윤 6월 18일)

48년생 부끄러움 결과손 들고 반성하자 60년생 들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가지자 72년생 고마운 도움에 급한 불을 꺼준다 84년생 행복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아보자 96년생 잘하고 있던 민음 한우물을 파보자.

49년생 성실한 반응도 이해가 우선이다 61년생 약속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73년생 때어난 애정 공세 편견이 먼저 온다 85년생 순조로운 시작 욕심을 더해보자 97년생 서러움도 냉소도 곳곳이 맞서보자.

50년생 필요한 자리에 바쁘게 도착하자 62년생 느끼고 천천히 돌리도록 두드려라 74년생 구해준 대접 신분 상승 할 수 있다 86년생 연필 대신 강기 부지런히 힘줄라 98년생 치솟는 자신감 하늘까지 닿아준다.

51년생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다가간다 63년생 어려움으로 통하는 친구를 찾아라 75년생 품앗이 수고에 소중함을 지켜라 87년생 낮은 자세 겸손 배움을 청해보자 99년생 불이익이 따라오 소신을 지켜라.

52년생 연애하는 감성 살림이 더해진다 64년생 어지간히 급해도 순서를 지켜라 76년생 노력과 정성 비싼 값이 매겨진다 88년생 응색했던 살림 부자가 되어간다 100년생 쓰러진 인생 공부 각오로 다시 하자.

53년생 지켜오던 고집 잘못임을 알아라 65년생 오래했던 준비 첫 삽을 들여보자 77년생 반가운 부름도 여유를 가져보자 89년생 걱정스럽던 대화 이내 편해진다 11년생 누구라는 이름 보석으로 변해간다.

54년생 궁금함 풀어주는 소식을 들여보자 66년생 차고 넘치는 기쁨만 세가 불러준다 78년생 성공이라는 의지 강하게 지켜라 90년생 근사한 자랑에 축하도 함께 한다 02년생 승려였던 재능을 밖으로 꺼내보자.

55년생 옆에서 두는 혼수 미물이 되어 온다 67년생 떠나야 할 자리 뒤를 남기지 마라 79년생 아차 실수는 전회위피이 되어준다 91년생 연습했던 순간을 처분해 떠올라라 03년생 실력은 일취월장 강이 바다로 간다.

56년생 충분히 만족하고 차선을 지켜오자 68년생 것술에 배부르라, 거린 좀허가라 80년생 어둠이었던 부진 희망이 비춰준다 92년생 아름다운 정성 예쁘게 받아라 04년생 자타공인 최고다 칭찬을 들어보자.

57년생 욕심을 비워내야 진짜가 보여진다 69년생 처음인 만남 공경까지 가셔야 한다 81년생 믿지 못하는 불신 손해는 배가 된다 93년생 현실적인 고민 무겁게 해라 한다 05년생 재미있고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자.

58년생 어휘동등 내 사랑 지키고 아껴라 70년생 미음이 열려지는 계인을 들여보자 82년생 충추고 노력하고 흥에 취해보자 94년생 계획에 없던 소비 낭비가 되야 한다 06년생 달리하는 부탁 초라함만 받아낸다.

47년생 오기 기 힘들던 인부를 들여보자 59년생 갯간이 두둑하니 잔치도 불러보자 71년생 별이 다섯 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83년생 어른말이 정답 조금씩 달아라 95년생 훈장 같은 성적표 쿠폰이 높아진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